

\* 2021년 8월 22일 주일 오전예배

\* 성경 : 잠 4:23

\* 주제 : 네 마음을 지키라(기도와 마음)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 4:23)

### [ 들어가는 말 ]

샬롬!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한국말로 ‘안녕하십니까?’ 바로 그 말이죠?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인사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샬롬’은 ‘평안하냐?’ 할 때에 ‘네가 혼자 평안하냐?’가 아닙니다. ‘주님과 아버지와 내가 연합된 상태에서 평안하냐?’ 그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오늘 하느냐면, 오늘 말씀 주제가 무엇을 지키라? ‘네 마음을 지키라’ 다른 것은 다 지키는데, 다 지킨다고 하는데 그 지키는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읽어 보니까 네 마음입니다.

### ❖ 네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모르고 살 때에는 도덕적인 인간이었습니다. 남들이 나를 볼 때에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점수를 따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자기를 알고 삽니까? 흔히 그렇습니다. ‘왜 저렇게 사느냐? 왜 저렇게 살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두 번 한 것이 아니고, 심지어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아들딸을 염려해서 뭐라고 권고를 했더니, 그것도 권고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염려가 지나치니까 계속되는 잔소리, 이제 자꾸 들으면 염려가 은혜가 아니고 뭐가 됩니까? 소리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잔소리가 있습니다. ‘아 왜 잔소리를 합니까,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보면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는데, 자기는 그 길 잘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한 사람의 운명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나느냐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무엇에 의해서? 왜? 어떻게? 무엇 때문에 변화를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녀를 공부시키고 남보다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더 유명한 사람을 만들게 하려고 하고, 부모 마음에 ‘저 정도 살면 그래도 괜찮아!’

우산 장수가 있고 조금 장수가 있죠? 부모는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왜 모든 근심, 걱정, 불안, 초초, 미움, 시기, 다툼, 사람을 죽여도 당연히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남의 것을 빼앗고도 ‘나는 잘못이 없다.’ 한 쪽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억울하다고.

이러한 모든 삶을 왜 인생들이, 누구는 어느 땅에 태어나서, 정말 아프리카에 요새 갔다 오고, 지진이 나서 난리가 났던 나라들 갔다 오고 뭐라고 합니까? 그 아이들이 하는 고백을 영상을 찍어다가 TV에 내보내고 후원 좀 하라고, 그 아이 소원은 뭐냐? 배고픈 것이 두 번째입니다. ‘학교 가고 싶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두 번째가 뭐냐? ‘먹고 싶은 것을 원하는 만큼 실컷 먹고 싶다.’ 어떤 아이는, 우리 돈으로 따지면 단돈 천 원, 이천 원이면 그 아이가 한 달 두 달 먹을 이유식이 나오는데, 그것을 사주지 못합니다. ‘왜 그런 곳에 태어났느냐?’ 사람들은 운명론을 말합니다.

그러면 운명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창조주가 개입된 운명입니까? 그냥 만든 운명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이렇다. 나는 이렇게 소원을 성취 했다. 나는 목표가 무엇이다. 나는 잘 먹고 잘 산다. 나는 출세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자기 본질을 알고 사느냐는 것입니다. 자기 본질을, 그냥 왜 사느냐? ‘나는 이것이 내 목표다. 나는 이것을 설정했다.’ 그리고 갑니다. 그런데 ‘왜 살아야 되느냐? 나는 무슨 일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야 되느냐? 왜 태어났느냐?’ 자기 출생 과정과 인생의 모든 과정과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인생이 있느냐, 없느냐? 입니다.

그래서 ‘네 마음을 지키라’ 그러니까 ‘정신일도 하사불성’ ‘한 가지만 밀고 나가면 된다.’ 아닙니다. 그것도 생각을 넣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시편 33편 15-17절, 한번 열어보세요.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함에 말은 헛 것임이여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저는’이 누구입니까? 창조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또는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일반’이 무엇이나? 모든 사람을 다 지칭해서 일반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의 무엇을 지으시며? 사람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만 만든 게 아니고, 동시에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주셨습니다, 마음을. 무슨 마음을 줬느냐? 어떤 마음을 줬느냐? 그래서 ‘마음을 지으시

며’ 모든 무엇을? 행사를, 하는 일을 다 지킨다.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함에 맡은 헛 것임이여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 나는 죄 사함 받았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의 삶에 무엇을 바꾸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를 어떻게 바꾸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누구냐?’하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다.’ 나 어렸을 때부터 듣던 말입니다. ‘하나님은 별도 우주도 창조하고, 사람도 만들고 들도 산도 다 만드셨다고’ 만드셨다고 한 분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성경에 있는 것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사탄의 마음, 선한 마음 그러고 있는데 그것은 추측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있고,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나는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 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어떻게 믿느냐? 나는 누구냐? 답이 없으면 안 됩니다.

## ❖ 두 종류의 마음

우리가 세상 살 때에, 또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본질적으로 변한 게 뭐가 있어요? 있어요. 남들이 볼 때에 외적인 변화, 한국에서 말하는 문자는 ‘도덕군자 처럼 산다.’ ‘그 사람 많이 변했어,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엉망, 말할 수 없는 엉터리더니 예수 믿고 나더니 사람이 진솔해 졌고, 말도 행동도 천국 같 것 같아 저 사람은, 천국 가’ 그런데 어디가 변했어요? 어디가 변했느냐고요? 껍데기가 변한 것입니다.

마음이 어떻게 변했느냐? 모든 인생은 ‘너는 누구냐?’ 했을 때에 ‘너 마음은 어떠냐?’ 했을 때에, 그 마음이 자기를 주관해 가는데, 이 마음을 누가 왜 주어서 그렇게 사느냐?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엄마 아빠 소원은 이런데 너는 왜 그렇게 사니?’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니까’하는 것입니다. 아이는 ‘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경은 삶에서 현실화 돼야 되고, 내가 성경이 말한 어떤 존재화 되지 않으면 삶도 그냥 외식 적이고, 남 때문에 사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두 가지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늘 씁니다. 양심(兩心)이 있고, 또 하나는 선량한 양심(良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속에 사람이 몇 개 들어있어요? 둘이 들어있습니다. 두 존재가 들어있습니다.

마음이 됩니까? 마음이 두 종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 하고 있느냐? 마음이 두 가지 싸움이 일어납니다. 늘 싸움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두 존재가 마음에서 싸움이 나는데, 선이 이겼느냐? 악이 이겼느냐? 싸움입니다. 맨날 이것가지고 싸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 선한 마음, 선한 사람은 사마리아 예수,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어렸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성장하는 과정의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장성한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마음 때문에 삽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과정 중에 가장 큰 고민 과정이 뭐냐? 로마서 7장 2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 ‘오호라’가 속에서 터지는 소리입니다. 왜?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에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람들은 선악 간에 고민을 합니다.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롬 7:25)

22절부터 한번 봅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말씀)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존재)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롬 7:22-23) 자꾸 잡혀가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18절부터 봐 봅시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롬 7:18) 육신이 무엇입니까?

육신은 멀쩡한데, 껍데기로는 멀쩡한데 육신이, 아닙니다. 성경은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썩을 몸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육신이라고 합니다. 살다가 결론은 죽어서 썩어버릴 사람을 육신이라고 하는데, 내가 죽을 몸을 가지고 살고 있는 내 몸에는 뭐가 거하지 아니한다? 선한 것, ‘선한 존재가 내 마음 속에 없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내게 없다.’ 즉, 하나님의 아들로써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것은 없다. 그냥 도덕적으로 선과 악인데, ‘내가’ 자기 이름을 넣고 읽읍시다. ‘누가 원하는 바, 선은, 선한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런데 어쩌다가 선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선한 행위, 이것은 내가 조

금 손해를 보더라고 이것은 해야 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면서 선을 행하고 기쁜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한국에는 세상 말하는 거지가 눈에 안 띄는데, 별로 안 띄는데 특히 날이 추워지면 많이 생깁니다. 그 추운 날 맨 바닥에 종이박스 몇 장 깔아 놓고 앉아가지고, 덜덜 떨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 만 내밀고 있습니다. ‘한 푼 줍쇼’가 없습니다. 하도 얘기 해봐서 아프니까, 해본 결론이 뭐냐? 지나가다가 돈을 몇 푼 주고 지나갈 사람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절도 안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어떤 때는 나도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오백원이나 천원 주고 가면 주고 난 다음에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게 무슨 일입니까? 선한 일이죠? 선한 일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참 선한 것입니다.

악은 뭐냐? 뻔히 ‘이것은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악한 일이다.’ 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버립니다. 나는 선인데 마음 한쪽에는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왜 그랬을까 하면 안 돼’ 그런데 해버렸습니다. 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악을 뭤로 바꿨습니까? 선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누가 이기면? 악이 선이 돼 버립니까? 나에게 좋으면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내 마음 나도 몰라’ 이것을 가지고 ‘작심삼일(作心三日)’이라고 합니다. 선과 악이 내 마음에 다 누구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많이 살았느냐가 도덕군자고,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 ❖ 너희는 누구냐?

선한 마음은 무엇이나? 누구의 마음이나? 그래서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 여기서 답이 뭐냐? ‘너희는 누구냐?’ 그 말입니다. 혈과 육으로 살다 죽을 사망이 주장하는 혈과 육의 몸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내가 손해를 봐도 어디까지든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계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누구냐? ‘선한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뿐이다.’ 너희는 누구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너희는 나입니다, 나. 처음부터 끝까지 나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우리가 지난주 저지난주에 말했습니다. 너희는 누구와 연합된 사람이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그리스도와 나, 연합 된 나’입니다.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지나서, 어느 동네에 ‘나는 누구 집 아들이다. 재는 누구 집 아

들인데 왜 저렇게 엉망으로 살지? 어머니 아버지는 참 좋은데 재는 참 나빠' 그러면 그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는 그냥 낱아 찢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철학적이고 인간의 모든 종교는, 나라고 하는 것을 버릴 수 있는 종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노력해 보는 것입니다. 노력해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기 때문입니다, 존재기 때문.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존재냐? 아들이 되려면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 이 과정을 성경은 은혜로 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은혜가 뭐냐? 영원히 해결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람들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습니까?' 난리가 나는데, 은혜를 받은 사람도 죽어버리고, 은혜를 베푼 사람도 다 죽습니다. 남는 것은 무엇만 남아요? 없을 무(無), 하나 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너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했습니다. 누구와 누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된 나다.' 행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당했을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 그 히브리 사람들이 볼 때에 자기들은 율법에 죽일 수 없으니까, 헤롯의 의해서 죽이려고 했더니 안 죽이고, 빌라도도 안 죽이려고 했습니다.

창조주가, 하나님의 아들인 존재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창조주' 참 쉽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실제 존재를 나, 내 사건을, 내 몸을 통해서 존재 규명을 할 수 있는 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가 말합니다. 북한에 김일성이나 지금은 김정은, 그 사람 앞에 북한 사람들이 갈 때, 어떻게 갑니까? 손만 한번 잡아도 손을 안 댄다고 합니다. 그 앞에 가면, 뭐 잘못된 일이 있어서 가게 되면 덜덜 떠는다고 합니다. 왜? 한마디로 죽이고 살릴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는 누구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 되어 있다. 아버지와 연합 되어 있다.' 이게 실제 내 존재화 된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자동차 몇 억짜리 차를 타면 기분이 어때요? '이거 네 꺼다'하면. 그 차 안에 들어가 앉았으면, 한국의 어느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이 되었는데 실감이 안 났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당선이 되고 어느 날 되니까 대통령이 타는 전용차가 딱 와서 기사가 있고, 뒤에 자기를 호위하는 차들이 따라다니고, 그 차에 앉아서 청와대를 들어가니까 ‘야, 내가 대통령 된 기분이 난다. 이제 느끼겠다.’

실감이 나는 나의 존재냐고요? 변화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을, ‘사랑을 오래 참고’가 그냥 사랑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가 사랑이고, 예수님의 존재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이라고 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일치가.

여러분들, 그래서 열두 가지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열두 가지 스타일은 그리스도 예수와 한 마음이 되고 한 존재가 되는, 이것은 이천년 전이 아니고 바로 오늘날입니다. 이 시대입니다. 이천년 전에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만 예수님을 알아봤는데 문제가 생기면 창조주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마음을 붙들어 주지 않으면, 창조주 하나님? 제자들 안 죽으려고 다 도망갔죠?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까지 가서 말뚝에 묶여있는 예수님을 보고 말도 한마디도 못하고 눈으로만 말하고 있을 때, ‘너 말이야 저기 예수하고 한패지’ 그 소리가 나올 때 바로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나 저사람 모른다.’ ‘야, 너 말투가 보니까 똑같은 말투인데’ ‘아니야 나 몰라’ 뒷걸음질 치면서 부인하고 나가서 통곡했던 자리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베드로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까? 베드로 생각으로 ‘나는 모른다’하고 나갔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고 나면, 베드로와 가롯 유다를 뺀 열한명 제자가 죽으면 안 됩니다. 입에다가 예수님을 저주하는 말을 집어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가롯 유다를 뺀 열 한명 제자는 그 죄를 묻지 않는 것입니다. 왜? 죽으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이루어나갈 과정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 ❖ 성경을 안다는 것

여러분들, 성경을 안다는 것은 나 자신의 존재화 된 이것이 존재화 된 생각과 삶까지 연결될 때에 성경을 아는 것입니다. 그냥 가르친다. 그것도 아는 것이지만, 아는 것은 헬라어 **γινώσκω**(기노스코)입니다. 존재화 돼서 사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읽었죠? ‘창조주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지으시며’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 한명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가롯 유다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습니까? ‘나 가롯 유다 안해 안해’ 몰라요 가롯 유다

가. 우리는 마귀 사탄에 대해서도 이미 여러분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마귀 사탄은 뭐하는 것이 마귀 사탄이냐? 인간 세계는 마귀 사탄에게 주었습니다. ‘너는 살다가 죽을 인생들을 다스리고 지배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 사탄이 있는, 지배하는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 사탄이 허락을 받지 않는 한 하나도 손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지으셨는데, 어떻게 지으셨느냐? 왜 ‘내 마음 나도 모른다’고 하느냐? 왜 누구는 그렇게 악한 놈이고, 누구는 선하게 사는데, ‘아 조금 선해’ 평가합니다. ‘저 사람은 아주 선한 사람이야’ 평가를 뭇로 해? 인간의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우리가 많이 아는 구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아니 벌써? 뭐라고 했어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무엇을 집어넣었어요? 팔아라는 생각을 넣어줬죠? 이것을 평소에도 넣었다 뺐다 하니까 전대, 현금 받은 부대에 있는 돈을 꺼내가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가룟 유다를 만드신 분이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현금에 손을 댈 때에 혼자 아무도 없으니까 꺼내 간 것입니까? 아니면 ‘너 돈 꺼내 꺼내’ 하는 마음을 주니까 꺼낸 것입니까? 악하게 쓰임을 받게 만드는 것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는 데서 저주하고 ‘나는 저런 사람 모른다’고 도망가 통곡했던 베드로하고, 예수님을 한 번도 부인하지 아니하고 은전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나뻐니까? 그게 운명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믿는 예수, ‘나 예수 영접했어, 창조주야, 이천년 전에 고난을 받고 부활한 분이야!’ 말이지, 나와 함께 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들 된 사람, 갈라디아서 4장 6절, 우리도 그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어떤 존재가 됐구나!’ 읽어봅시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누가 아들인 고로? ‘너희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수천 년 성경이 내려왔어도 ‘너희가’를 그냥 ‘내가, 네가’하고 읽었습니다. 아닙니다. ‘너희가’라고 하는 것은 이미 누가 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아는 ‘너희’입니다. 나 혼자입니까? 연합되어 있습니까?

우리도 육신의 자녀를 낳아서 키웁니다. 그런데 ‘엄마아빠’ 소리가 나올 때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엄마아빠를 얼마나 알고 엄마아빠 합니까?



30년을 키운 놈도, 욕을 만들고 거짓말을 만드는데 그게 자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를 안내는 것입니다. 왜? 그 입에다가, 마음에다가 생각을 넣어 준 것입니다. ‘너는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해라’ 이미 마음을 사탄에게 통째로 뺏긴 사람들입니다. ‘어우 저놈이 나를 욕을 한다고’ 지가 누군데?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왜 나를 욕하는지, 왜 나를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가롯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을 때, 제일 먼저 가롯 유다가 ‘아, 나는 팔아먹자’했습니까? 가롯 유다의 의지입니까? 아닙니다. 마귀가 벌써 생각을 넣어줬습니다. 예수님 팔아먹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27절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가롯 유다의 속에, 어디에? 마음에 들어가서 이제 가롯 유다는 가롯 유다가 아닙니다. 사탄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제가 금년 5월 달에 강의 하면서 ‘내가 30여년 사역에 처음 얘기 한 다. 우리 주위에 생기는 모든 일은 선악 간에,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욱기서 1장 2장, 42장까지 인데, 우선 욱기서 1장 2장만 봐라. 마귀 사탄이지 마음대로 움직이느냐,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에게 와서 동의를 얻어갑니까? 욱기서 1장 6절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이 섰고 여호와께서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거기 서 있는 아들들인지, 다른 아들들이 있는지 아직 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날이 되면, 그냥 백보좌 심판, 심판하는 것만 따지지 말고, 내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마귀 사탄이, 왜? 살다가 죽을 인생을 허락 받고 운명을 결정짓게 할 때, 마귀 사탄이 짓는 것 아닙니다. 태어날 때 벌써 이미 작정된 그 인생을 가는 게 인생입니다. 마음에 무엇을 집어넣어서 그러는지, 그냥 없는 것을 만들어 내는데, 누구는 이만큼 만들었다고, 이만큼 만들어 가지고 거짓말하는데, 말이 먹히겠느냐고, 맞습니다. 온통 생각이 다 뺏긴 것입니다. 왜 뺏겼느냐? 그 사람들이 악해서 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말을 입에다가 넣어주면 그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운명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겨먹느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망가게 만드느냐? 아닙니다.

## ❖ 창조주 입장에서 보라

창조주의 입장에서 보라고 한 얘기는, 우리가 영접한 예수, ‘예수 안에 있다.’ 그 분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8장 52절부터 봐 봅시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예수님을 보

고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왜? 저희가 귀신의 씨를 가지고 있으니까, 최고의 표현이 그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거기 ‘너는’이 누구입니까? 이천년 전에는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누구와? 여러분들을 얘기하면, ‘너는 이미’ 할 때에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지금 ‘너는’ 할 때에, 그 ‘너는’했던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가 누구 안에 연합되어 있어요? 이것을 ‘아우 내가 잊어버렸어’가 아니라 ‘왜 잊어버리는 상태에서 살고 있느냐’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씨라는 것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인도의 간디, 인도의 독립을 이루었던 간디가 어렸을 때, 자기 종들을 죽이고 살리고 팔고 사고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모를 때, 같이 놀다가 어느 날 되니까 ‘도련님’하고 나와서 ‘물고기 잡아서 구워 먹으로 갑시다.’ 힌두교인들은 물고기 못 먹습니다.

어느 날 되니까 ‘도련님’하고 몰래 와서 부를 때 ‘너희끼리 나가라’ 자기가 그들을 죽이고 살리고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것을 알고 난 다음에야 ‘너희끼리 가라’ 그래서 종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아, 저 양반이 뭘 아셨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에 살고 있을 때에도,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신 것은 운명, 내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생각을 넣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한국을 현대화 시킨 앞서간 세상 사람들도, ‘너는 자동차 공장 만들어라, 배를 만들어라, 전자제품 만들어라’하고 생각을 주고 여건을 만들어 주니까 만든 것이지, 왜? 누구는 생각을 못하는데, 누구는 그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아들들을,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라’ 내 마음이 주님과 한 마음이 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요 8:53) 여러분들은 ‘너는’ 할 때에 아브라함보다 큼니까, 적습니까? 여러분들은 죽은 아브라함보다 큰 존재입니까? 적은 존재입니까? 이게 삶 속에서 내 사건 돼서 읽을 때에, ‘아, 이제는 아들로써의 가치성을 느끼고 사는구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 것도 아니어나와”(요 8:54) 다음절 읽어봅시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오십도 못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요 8:56-57)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요 8:58) 다 같이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연약할 때에는 내가 그냥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던 그분이 바로 이천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던 분입니다. 인간을 만드신 분이 오셔가지고 아들들의 죄와 사망을 없애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오늘날 ‘나는’ 할 때,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보는 나 자신입니다. 함께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누가 만나요? 나 혼자 만납니까? 예수 믿으니까 그분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신 분이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하는 것이 염려는 말기는 것입니다.

복음의 세계화, 단순한 그냥 복음 세계화가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알아서 몇 살이 됐느냐? 영적인 성장이, 연합된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마지막 한 사람을 찾을 때까지 우리는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마지막으로 창세기 12장 3절 한번 봐봅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너는’이 누구입니까? ‘너는’이 누구예요? 이 말씀을 사천여년 전에 전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던 그분이, 우리와 연합이 돼서 ‘너는’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우리를 저주한다고 할 때에는 사람이 ‘내가’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는 ‘저놈이 나를 욕해?’ 아닙니다. 각본입니다.

사람을 만들고 마귀 사탄을 만드는 창조주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우리와 같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어 있어요. 그러면 악한 소리를 해도 화가 나면 안 됩니다. ‘이게 각본이구나, 각본이구나!’ 그래 무슨 각본을 만드셔가지고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끌고 가고 있느냐? 이것을 알아야지, 계산을 해 여기에 붙으면, 저기에 붙으면, 그것을 계산하고 앉아 있으면, 어느 편에 붙을까 생각하고 앉아도 바보고, 자기는 모르는 것입니다.

‘나를 축복하는 자는’ 하니까, 인간 내가 축복받아. 아닙니다. ‘네가 왜 날 욕해?’ 아닙니다. ‘너를 만드신 분이 나하고 같이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너는 참 불쌍하구나! 어떻게 그렇게 쓰임 받느냐? 참 불쌍하구나!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 때문에 태어난 너희가 참 불쌍하구나!’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어떻게 맡겨요? 맡깁니다. 믿습니까? 아닙니다. 문제를, 염려를 만들어 주신 분과 우리가 같이 있기 때문에, 주신 분이 때가 되면, 우리 훈련이 끝나면, 밤안개가 앞도 지척을 분간 못하는데 바람이 한번 불면 없어지는 것 같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당한 지금 이런 일들은, 싸우고 변명할 필요 없습니다. 저들이 시작하면 우리는 시작하고 따라갈 뿐입니다. 빠른 세월에 끝납니다. 길게 질질 끄는 사건이 아닙니다. 누가? 저들은 인간인 나, 인간인 저 사람들, ‘누구는 누구 편이더라’ 아닙니다.

주님과 아버지와 연합된 창조주들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왜? 각본이니까. 모든 염려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 안 오면 훈련 못 받는 것입니다. 훈련 받는 것입니다. 나와 싸우는 싸움이라면 내 방법을 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와서 싸움이 아닙니다. 나를 키우시기 위한 방편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있을 때에 ‘이것은 아버지가 영원 전부터 정하신 각본을 따라 일어나는 일이다.’하고 말한 것입니다.

다 같이 ‘너를’ 할 때에 너는 누구니까? ‘너는’이 누구예요? 내 형상과 모양이 드러나야 됩니다. 점점. 그러면 ‘축복하는 자는’ 누가? 그 사람이 축복하는 것입니까? 축복하게끔 만들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창조주인 내가 너희를 복을 내리고, 그 사람을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에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는다.’(창 12:3)

## ❖ 맺음말

오늘 이후에 무슨 생각이 올지라도, 연합된 사건 연합된 존재라는 것만 인식하면, 여러분들에게 또 한 주간 주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하는 살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